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본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3월 26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데이터산업과	담당자	•블록체인팀장 구병길 ☎440-3271 •담당자 윤영두 ☎440-327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에 도전장
-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 신청서 제출 -
- 디지털 경제특구 및 블록체인 허브 위해 ...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제시 -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경제특구 조성을 추진 중인 인천시가 블록체인
 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에 도전장을 내고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역 블록체인 기술
 혁신지원센터 구축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24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22일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블록체인 개
 발환경 구축 및 서비스 실증, 지역특화 산업과 융합 기술개발 지원,
 기업육성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한 곳을 선정할 예정
 이다.

이에 시는 지역특화 바이오·헬스 산업,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글로벌
 기업·대학 등 인천이 보유한 최적의 입지와 송도·영종·청라·미추
 홀(원도심) 등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에 최
 적의 도시임을 강조해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유치에 나섰다.

인천시는 바이오·헬스 산업과 4차 산업혁명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를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인천에는 바이오산업 분야 세계 최고 수준 앵커기업(삼성바이오로직
 스, 셀트리온 등) 및 4차 산업혁명 핵심시설인 인공지능(AI)혁신센터
 Powered by AWS(AmazonWebService), 20개 이상의 블록체인 전문기
 업, 4,700여 개의 디지털 관련 기업이 포진해 있다.

시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상안도 제시했다.

우선,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와 미추홀구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 전문인력양성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바이오·헬스 산업과 융합 기술을 지원하는 메인넷 구축, 개발환
 경 및 서비스 실증지원, 수요형 비즈니스모델(R&BD) 개발지원,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등 사업 계획서 작성 등에
 힘을 쏟았다.

또한, 기술 기반의 창업, 지속적인 성장과 육성을 위해 중장기 추진전
 략 수립에 이어 구체적 실행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헬스 산업 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이 있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디지털 경제특구의 최적
 지”라며,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국제공항과 항만
 등 최적의 여건을 갖춘 강점을 살려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를 유
 치하고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단계별 전략)



□ 대상지역



- 경제자유구역인 청라(금융, 환경), 영종(항공, 항만, 물류), 송도(바이오, 의약)을 연계한 **디지털 경제특구**를 조성하고,
- 원도심지역(제물포 등) 및 인천전역에서 **연계사업**(공유주차장, 탄소포인트 등)을 추진하여 **블록체인 선도도시 생태계**를 구축